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배포일시	2018. 10. 4(목) 총 7매(본문 4, 붙임 3)	
담당 부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기획단	담당자	· 팀장 조기재, 서기관 박기범, 전문위원 조영진 · ☎ (02)397-5504, 5506, 5515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담당자	· 과장 남영우, 사무관 육인수, 주무관 홍지란 · ☎ (044)201-3755, 4750, 3767	
보도일시		2018년 10월 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4(목) 16:00 이후 보도 가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 동네건축부터 확 바꾼다

-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본격 추진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 이하 국건위)는 지난 9월 4일(화)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 이 날 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SOC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도 함께 병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밀착형 생활SOC가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 이를 위해 국건위 위원장은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라는 주제의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①건축의 공공성 증진, ②설계방식 개선, ③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하였다.
 - 국건위는 행사 당일 발표된 3대 혁신과제의 후속조치로 그간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주요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공공건축 혁신 9개 핵심과제를 선정, 앞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 우선,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① 행사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한 바 있는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② 또한, 현재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그 대상과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 현행 설계비 2.1억 이상의 공공건축물 발주 시 사업기획안을 사전검토(건축도시공간연구소)

③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국전위가 앞으로 적극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 다음은, 제대로 된 건축 설계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④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하여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⑤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공고시점에 사전공개, 내부 심사위원 비율 준수 등

⑥ 아울러 현재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시공 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 ⑦ 현재 기존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를 적용받고 있지만, 주민 참여 등 충실한 기획과 다양한 발주방식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공공건축만의 보다 구체화되고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하고,
- ⑧ 현재 깜깜이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⑨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한다. 이는 사업계획 확정 후 통상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은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개발사업 전체의 경관이나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위하여 이미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과제는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공건축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국건위-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창의적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전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다.

붙임 :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1부.
공공건축물 자료 사진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 박기범 서기관(☎ 02-397-55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 제 명	실 행 방 안	관 계 부 처	추진 일정
좋은 공공건축을 위해 발주기관의 전문성 보완			
① 지자체·공공기관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 지자체 및 공공기관 홍보·교육 · 민간전문가 예산 지원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	’18년 ~
공공건축의 사업초기 기획 강화			
②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능 강화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대상 확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령’ 개정	검토 대상사업 추진부처 및 지자체	’18년
③ 중요 건축·도시사업 사업 계획에 대한 국건위 자문 시행	· ‘건축기본법’에 의거 자문 시행	중요사업 추진부처	’18년 ~
공공건축의 설계발주 방식 개선			
④ 건축설계용역 가격입찰 축소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국토부	’19년
⑤ 주요 발주청(조달청, LH 등) 건축설계공모 절차 정상화	·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기재부 (조달청) 국토부	’18년
공공건축의 시공과정까지 제대로 관리			
⑥ 시공단계 설계자 참여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 업무 의무화	· ‘건축법’ 개정	국토부 기재부	’19년 上
공공건축에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			
⑦ 공공건축 특화 규정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 각종 서비스/기술업무의 절차기준 등 관련 기준 마련	국토부	’20년
소규모 건축물 시장의 정상화			
⑧ 우수 업체 등록 제도 시행 (제도시행 법적 근거 마련, 우수설계자 DB 마련)	· DB등록시스템 구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 개정(우수 업체 등록기준 및 근거 조항 신설)	국토부	’19년 上
지역개발사업 프로세스 정상화			
⑨ 지역개발사업의 건축 프로세스 정상화	·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 · 사업단위별 시설 기획·설계·시공 업 무절차 기준 마련 · 국토부 소관사업 대상 시범사업 후 타 부처 사업으로 확산 · 사업단위 건축코디네이터 제도화	문체부 농림부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18년 ~



지구대



우체국



주민센터



어린이집

《일상에서 만나는 동네 공공건축》



《구산동 도서관마을》

기존 주택 리모델링과 신축의 조화,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조성

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최재원, 임상진, 신승수)



《금호 초등학교》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참여형 수업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교실 공간 모델

와이즈건축사사무소(전숙희, 장영철)



《다락옥수》

방치된 고가 하부 공간을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회복하고, 경관 및 환경 개선에 기여

조진만건축사사무소(조진만)



《창4동 어린이집》

내외부 공간의 연계 등을 통해 건물 전체를 놀이터이면서 체험학습 장소로 조성하여 아이들의 창의력 제고

이로재김효만 건축사사무소(김효만)

《공공건축가 등을 통해 혁신을 이룩한 서울시 공공건축》



《영주 노인 복지관》

철도에 의해 단절된 삼각지 지역을 공원화하고 복지관을 건립하여 세대 소통의 공간으로 회복

보이드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이규상, 장기욱)



《풍기읍사무소》

주민이 사무소 중심에 위치하고 3면으로 출입하는 등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건축

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 (최재원, 임상진, 신승수)



《조제읍 보건소》

주민들의 소통공간 마련을 위해 온돌방으로 설계된 보건소는 택배기능까지 더하여 동네 사랑방 역할

건축사사무소 인터커드(윤승현)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의회창고를 비보이 연습실로 개조하여 문이 열리면 주차장은 객석이 되고 비보이 연습실은 무대로 변신

아뜰리에 리옹 서울(이소진)

《공공건축가 등을 통해 혁신을 이룩한 영주시 공공건축》